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李鄕允
主幹 宋赫
編輯部長 文孝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能吐善態,
戒惡安靜,
降心己調,
此應法衣.

마음의 독한 태도 뱉어버리고, 고요히 모든 계(戒)를 잘 생각하며, 마음을항상 북받아 스스로 스리면, 그는 법일의 기 알맞다.

佛教學의 世界的交流에 期的的成果

世界佛教學術會議 성황리에 閉幕

危機克服의 指導理念 모색

眞摯한 問題提起 장래展望

連二日, 發表 討論

佛教의 責任·役割 강조

◇「佛教와 現代世界」를 主題로 열린 世界佛教學術會議의 31日 開會式 光景.

本校에 本部 世界的 研究機關으로

國際現代佛教研究院 設立

世界佛教學術會議 제3일 綜合討論에서 美國의 헤커스더 教授등 전체참석자들의 진지한 토의에 따라 本校에 世界的인 불교연구기관의 본부인 「國際現代佛教研究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지난달 31일부터 本校開校70周年 기념사업으로 連3일 열린 世界佛教學術會議는 現代社會에서 불교의 현실을 검토하고 他學問과의 융합한 연관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再해석하여 佛教精神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開催되었다.

本校 開校 70周年紀念事業으로 추진해온 世界佛教學術會議는 31일부터 市內 中區소재 엠배서더호텔 大會議室에서 시작됐는데 이 총장은 開會辭를 통해 『이번 회의는 세계불교학술회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편 세계불교학술회의는 연3일간의 진지한 교수등 각국학자가 본교에 국제적인 佛教研究機關의 본부를 두도록 제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李瑄根총장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교는 세계적인 佛教學研究의 센터인 「國際現代佛教研究院」을 두게되는 점과를 거두었다.

편제3일 綜合討論이 끝날때, 이회의의 성과를 평가하는 헤커스더教授, 印度의 관베야 교수등 각국학자가 본교에 국제적인 佛教研究機關의 본부를 두도록 제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李瑄根총장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본교는 세계적인 佛教學研究의 센터인 「國際現代佛教研究院」을 두게되는 점과를 거두었다.

열렸다. 회의는 韓國, 美國, 日本, 中國, 印度, 스리랑카, 캐나다, 벨기에, 티베트등 세계 10개국 學者 70여명이 참석, 「佛教와 現代世界」라는 주제아래 각 分科別로 진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계속했다. 회의는 3개분과로 구분, 각분과마다 5개 小主題에 걸쳐 각2명씩 도합 30명이 主題發表에 나섰다.

2일 폐회식은 1백여명의 회의관계자와 5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부터 李瑄根총장의 開會辭에 이어 李瑄根총장이 座長으로 추대된 世界佛教學術會議 綜合討論에서 美國의 헤커스더敎授등 전체참석자들의 진지한 토의에 따라 本校에 世界的인 불교연구기관의 본부인 「國際現代佛教研究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지난달 31일부터 本校開校70周年 기념사업으로 連3일 열린 世界佛教學術會議는 現代社會에서 불교의 현실을 검토하고 他學問과의 융합한 연관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再해석하여 佛教精神이 현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開催되었다. 이번

世界佛教學術會議의 成果

社說

동국학원 개교70주년기념 세계불교학술회의가 佛敎와 現代世界」라는 주제아래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앰버서더 호텔의 화려한 국제적 규모의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세계불교학술회의는 李瑄根총장의 개회사와 柳炳德문교부장관과 李西錫조계종 총정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국내외의 유명한 불교학자와 종교학자내지 철학자들과 또한 참가자들은 수십명의 귀빈과 참관자이 경청하는 가운데 3일동안 열띤 발표와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큰 성과를 거두고 폐막된 이번 불교학술회의는 李瑄根총장에 의하여 마련된 본교 개교70주년기념을 위한 3대과업의 하나로서 高麗大藏經 影印本 完刊과 더불어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이 될 것이다。 또한 이날 종순에 完工을 보게될 法堂建立을 합치어본다면 동 대학교에있어서 1976년은 명실공히 역사적인 해가 될것이다。

실제로 이번 국제불교학술회의와 高麗大藏經 影印本 完刊의 사업은 단지 동국대학만의 과업이 아니라 불교계의 역사에 있어서도 커다란 업적이오 또 나아가 인류의 문화면과 산업화사회에 의하여 이 특히 물질적 정신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은 올바른 종교와 인간정신과 도덕을 올바르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성회복의 구원을 희복하여 세계평화와 전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불교가 現代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이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문고 답하기 위하여 「佛敎와 現代世界」라는 大主題아래 世界여러나라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世界佛敎學術會議를 개최하였던 것이므로 안다。

이미 시내 일간지나 본 동대신문에 게재되어 이 회의의 성격이나 발표자 내지 발표요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거니와 본 회의의 第1分科의 主題인 「現代國際社會의 理念的 混沌속에서의 佛敎의 位置」、第2分科의 主題인 「現代人을 위한 生活理想으로서의 佛敎」、第3分科의 主題인 「佛敎는 現代社會에 어떻게 適應할 것인가」等等의 各分科의 主題만 보더라도 이 회의의 내용이 얼마나 現代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第1分科에 있어서 「사회학적인측면에서 불교를 본다면 불교가 존장한 우리로 (또는 밖으로) 부터 박사의 발표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일면에 있어서 불교가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며、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종교가 존립한다고 말한바 객관적 정세가 엿다고 주장한 일본의 牧田博士와 정태혁교수의 발표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反人間的이며 反宗敎的인가를 새삼 실감케 하였다。

스튜웰 박사의 唯心論 동양이고 르게 결합된 慈悲와 調和와 平和의 영역으로 변전시킬수 있다는 발표와、기계문명과 기관과 世界를 이기적인 투쟁과 暴力의 世界로 변전시킬수 있다는 발표와、이기영박사의 慈悲의 方便은 결코 폭력의 의지를 협멸적으로 변혁하고 道力으로 化하여 인간들의 실존의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라고 주장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의 존재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성에 의해서 확인하는 나 않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하니、唯物論者들은 물질이야말로 우주의 本體라고 하고、따라서 인간생활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물질은 우주의 창조관념의 原動者로서 자기원인이 되며、그것은 보편적 因果連關으로서의 절대자라고 보는것이다。

또한 그들은 自然界의 合目的性、美의 創造作用등은 물질의 與妙한 投影이라고 생각하며、唯物辯證法에 의한 勞動者階級의 勝利가 이 世界에 淨福을 주어、社會主義國家에서의 野蠻人의 무력함이 神이나 惡魔나 기적 등의 信仰을 낳게 하는 것과같이、보다 나은 來世의 생활을 믿는 신앙을 낳게 한다。 전쟁애를 노동과 종교는 天國에있어서의 報酬의 희망으로 워로하여 地上의 생활에 있어서의 溫順과 忍耐를 가르치고있다」고 하였다。

「마르크스·엥겔스」의 이러한 宗敎批判은 당시의 기독교의 「等等宗敎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종교에 대한 그들의 宗敎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人間의 超自然的인 힘을 想定한것에는 거기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超自然力에대한 直感力의 작용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想定하게하였으며、超自然力과 呪術的인 관계가 몇 어질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과 그에따른 초인간적인 생활협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몸으로써 체험한데서 발생한 것이다。 결코 이것은 無知와 無力에서가 아니라、인간의 지혜다。

특히 佛敎는 지혜의 종교요、成就衆生과 淨佛國土를 이념으로 하는것이니 「마르크스·엥겔스」등의 종교에대한 무지는 더말할것 도없다。

또한 불교의 종교로서의 表象은 몽산주의자의 종교개념에 의한 것과는 다르것이므로 그들의 비판의 대상에 들지도않는다。 그들은 또한 社會主義社會建設에 있어서 종교라는 것이 일종의 精神的인 麻醉나 그 역할 또는 社會的 機能에 대한 見解에 의해서 형해지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유일한 무기인 辯證法的 思考에 의해서행해진다。

그러면 「마르크스」主義的인 종교의 취급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일반적、보편적인 형태로써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특정의 面에서 관찰하여 처리한다。 곧 宗敎도 歷史的、社會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간이란 역사적인 존재요、이 세계는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므로 종교도

1、慈悲와 暴力、그 用語의 問題

佛教의 術語 慈悲 (Maitri-Karuna)를 Compassion이라고 번역하고, 또 暴力이란 英字를 Violence라고 번역한다면 英語로 읽는 사람과 漢字로 읽는 사람이에서는 과연 같은 想念이 떠오르는 것일까? 이는 저속이 의문이 아닐수 없다. 慈悲는 보통 한날말로 이해되어 저러한번역가가 통용되고 있지만 佛教의 慈悲는 그 原語가 말해 주듯 두개의 낱말이며, 그 두낱말은 각각 相異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慈悲」는 佛教의 가장 기본적인 教理를 표현하며, 이것을 明確히 알고 실천하는 것은 모든 佛教의 當爲인만큼 그 뜻이 잘못 이해되거나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佛教는 慈悲의 實踐을 강해 强調해 왔다. 현대에 激增된 暴力의 亂舞下에서이 慈悲의 실천은 매우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처럼느껴진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慈悲의 意味가 사람들에게 明瞭하지 않은것도 하나의 원인이된다.

우리는 現代世界에서 부딪치는 問題를 Terrorism이라고해도 좋고 또는 Violence라고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內延밖에는 못가지는 槪念이다. Terrorism이나 Violence가 다 우리 佛教人의 慈悲의 立場에서 되지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暴力이라는 말을 썼을때에는 인도말 Ahimsa (非暴力)에 반대되는 槪念으로 이해되어 한층그 뜻이 廣汎하다고 볼수가 있을것이다.

2、現代世界에서 佛教人이 부딪치는 問題

人間이 사는 곳에 暴力이 없어본 例는 없다. 그것은 人間이 있은 太古以來의 問題이다。佛教의 寂靜 (Santi)을 바로 그것이 終熄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阿闍世王 (Ajatasatru)와 提婆達多 (Devadatta) 는 지난날 釋迦世尊앞에 擾頭면 代表的 慈悲는 暴力을 극복하는 방편이자 결과로서 높이 顯揚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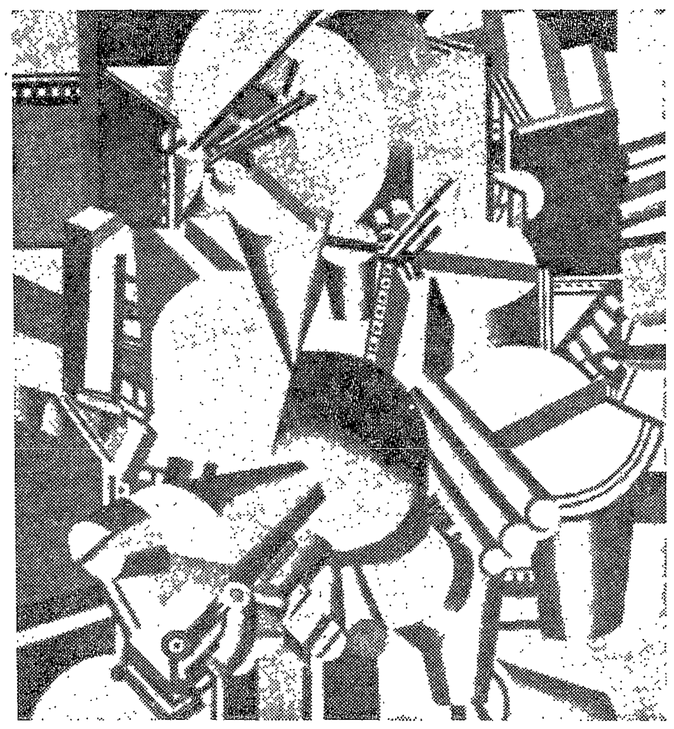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現代人은 분명히 그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暴力亂舞의 시대에 살고 있는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現代의 暴力은 組織化되였고 集團化되였으며 激烈化되였고 또 합리화되고 찬양되고 있다。無慈悲한 파괴와 殺戮을 합리화하고 찬양하는 메디의 暴力論은 모든 共産主義集團의 표면화되고 행동화되어나타난다。

이 즉겨쓰는 이른바 혁명의 理論이 되어 폭력의 행사가 장려되고 있다。아랍게릴라의 暴力行使가 있고 赤軍派의 파격한 폭력행위가 일어나고있다。國際政治의 外交舞臺는 바로 暴力의 恐喝과 脅迫이 중요한 手段化되고 있다。暴力은 貧力이라고 公言되고있다。勞動者들이나 學生은 言必稱 實力行使라고 할때 실력의 同義語로서 暴力、腕力을 들먹인다。暴力스트라이크、集團的데모 이것이 實力行使이다。돈 몇구원을 위해서도 사람을 목숨라죽이기를 서슴치 않는 强盜 殺人行爲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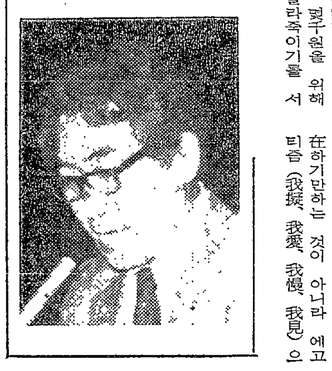
이러한 정세하에서 佛教의 慈悲精神은 어떻게 具體化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은 저 크메르나 라오스의 佛教徒처럼 나이브한 無分別 寬容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그것은 이른바 佛教社會主義를 自處하는 사람들처럼 暴力에 同調하는 方向으로기울어도 좋은 것인지 우리 앞에는 이와같은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3、暴力의 佛教的意味

暴力은 要컨대 無明業識 그 自體요、그 所産이다。그럼 의미에서 暴力을 人間누구에게나 內在하는 하나의 어두운 힘이라고 할수가 있겠다。그어두운 힘은 潛在하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는 이와같은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원 반 (1918·레제作)



永箕李
▲佛教大教授·哲博

暴力은 貪瞋癡 三毒煩惱의 根本이며 모든 不善業의 根源이다。그러므로 暴力은 絶對로 否定되어야 한다。그러나 暴力은 그 自體가 惡이라고 斷定할 수는 없다。暴力은 그 動機와 目的에 따라 善惡이 決定되는 것이다。

暴力은 크게 나누어 ①個人的 暴力 ②社會的 暴力 ③國家的 暴力으로 나뉘어진다。

①個人的 暴力은 個人과 個人사이에 일어나는 暴力으로 그 原因은 貪瞋癡 三毒煩惱에 있다。

②社會的 暴力은 社會構造의 矛盾에서 일어나는 暴力으로 階級鬪爭、人種差別、民族紛糾 등이 그 例이다。

③國家的 暴力은 國家權力의 發動으로 나타나는 暴力으로 戰爭、內亂、革命、死刑、警察力行使 등이 그 例이다。

이 세가지 暴力은 서로 因果關係를 맺고 있다。個人的 暴力은 社會的 暴力을 誘發하고 社會的 暴力은 國家的 暴力을 誘發하며 國家的 暴力은 다시 社會的 暴力을 誘發하고 社會的 暴力은 다시 個人的 暴力을 誘發한다。

4、慈悲의 大乘的意味

한국 佛教는 대체로 수많은 폭력적 外儀를 容許하면서 살아왔다。佛教精神을 알지못한 열렬한 호국신자인 왕과 대신과 장군과 승려와 신도들이 폭력의 橫暴앞에서 그저 비판없이 순응하고 심지어 同調하여 侵略戰爭을 讚揚하기까지 하였다。이제 그 몇가지 例만을 들어보자。

①新羅人들은 十一面觀音을 깊이 신앙했고 석굴암本尊佛뒤에 彫像을 만들었는데、二十二面觀音의 각면에부여된 자비慈悲의 文武王을 비롯한 當代신라인들의 세민족국가건설의 염원이 되였였다。

②新羅의 고려두시대에 걸친 仁王護國經의 신앙은 侵入하는 폭력에 대처하여 般若의 힘을 빌어온 증거이다。

③高麗에서의 大藏經板의 雕造는 大藏經을 彫造하는 정성의 功德을 믿어온 暴力대한 또다른 표현이다。

④僧侶들을 맞은 李朝의 僧軍권기는 폭력에 대항한 朝鮮僧侶들의 慈悲魂을 나타내 보이는 實例이다。

⑤後代에 내려 올수록 教學은 形骸化되고 禪은 公案화하여 그 本來의 일체 자체를 眞實로 하는 방편이 결여되어 폭력을 이 형체 評價하는듯이 마땅하다고생각한다。

우리는 불교의 입장에서 폭력을 評價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原則에 두고 싶다。

①慈悲의 大乘的 精神에 입각한 것인가?

②佛教의 根本目的인 解脫과 涅槃에 부합되는가?

③佛教의 基本教理인 緣起의 理法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세가지 原則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佛教의 慈悲精神에 입각한 폭력은 容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暴力과 慈悲

暴力은 一種의 舞踊과도 같은 것이다。그러나 이 무용은 미뉴에트나 스퀘어무용에 있어서와 같은 어떤 格式이나 규정지워진 一連의 動作이 아니고、어디까지나 相互交換、交涉、應答을 요청하는 回轉、나아가 앞뒤 굽히기를 信號하게 되는 契約으로 굽히기 等과도 같은 한갓 자유로운 움직임의 흐름인 것이다。그것은 또한 隔離와 接觸을 이룰수가 있으며 맡자면 give and take이며、그것은 個人의 決定이나 努力과 創意를 유지해주는 運動과 에너지와 知覺과 期待의 混合體인 것이다。그러나、暴力의 犧牲者는 絶叫하기를、얼마나 理想的인 이미지라하겠는가! 그것은 個人의 損失의 쓰라림을 表現하지 않고 個人이나 國家의 自由의 權利나 安全을 探究해보려는 바도 아니며、나아가 弱한 者와 無援孤立한 者의 恐怖를 暴露하고자 함도 아니다。그렇다면 相互間의 應答속에서 그들의 行動이 서로 엮혀들어 혼돈 돌아가고、뿌며 헤리를 굽히는、둘 或은 그 이상의 무용자들이 어디서 어느 參加者들이 惡참을 나타내는가、어느 參加者가 正當함을 표시하고 있는지의 많은 물음을 처리해 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激烈한 攻擊이 威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F·스트렝
▲美、南監理教大教授

여주었다고 바라고 싶다。그러나 인간은 生物學的으로나 혹은 社會的으로 先定된 것이기 때문에 頑强한 행동이 인간생활의 필요한 樣相이라는 인간생활의 다른 樣相을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즉 다음에는 여러 活動相이 있으며、그들 스스로가 경험의 상이한 패러미터 (母數)를設定하게된다는 사실을 말함이다。인간의 知覺內에 있어서의 공통된諸要素、自我同一性、나아가 努力을 그들이 相異한 精神、情緒的 狀況下에 놓여질 때 전혀 判異한 種類의 行動을 발생케 할는지도 모르겠다。그와같은 이치로、어떠한 過激한 行動의 경험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는 의식의 특수한 調節이 있는 것이다。理解와評價의 內面的 能力 혹은 더욱偉統的인 「心性」 내지는 「中心」의 상태는 변형의 상태나 결과에 대해 寄與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이다。생존의 根本的 힘에 관계되는 역할을 認識함에있어 어떤것이 마땅한가? 그것은 저 크메르나 라오스의 佛教徒처럼 나이브한 無分別 寬容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그것은 이른바 佛教社會主義를 自處하는 사람들처럼 暴力에 同調하는 方向으로기울어도 좋은 것인지 우리 앞에는 이와같은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3、佛教의 慈悲—威脅을 福祉로轉換

우리가 第一項에서 제시한것처럼 暴力이라는것이 不適當한 형태를 취하게되는 基本的 有機的 에너지의 형태이며、그리고 이 있으며、그들 스스로가 경험의 상이한 패러미터 (母數)를設定하게된다는 사실을 말함이다。인간의 知覺內에 있어서의 공통된諸要素、自我同一性、나아가 努力을 그들이 相異한 精神、情緒的 狀況下에 놓여질 때 전혀 判異한 種類의 行動을 발생케 할는지도 모르겠다。그와같은 이치로、어떠한 過激한 行動의 경험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는 의식의 특수한 調節이 있는 것이다。理解와評價의 內面的 能力 혹은 더욱偉統的인 「心性」 내지는 「中心」의 상태는 변형의 상태나 결과에 대해 寄與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는 것이다。생존의 根本的 힘에 관계되는 역할을 認識함에있어 어떤것이 마땅한가? 그것은 저 크메르나 라오스의 佛教徒처럼 나이브한 無分別 寬容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그것은 이른바 佛教社會主義를 自處하는 사람들처럼 暴力에 同調하는 方向으로기울어도 좋은 것인지 우리 앞에는 이와같은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2、暴力을 理解함에있어 어서의 意識의 相異한行動의 重要性

暴力의 여러 가지 心理的 洞察에 손댐으로써 우리들은 暴力이라는것이 人間生活에는 절대적으로 因緣이없는 어떤것이 아니라、인간의 日日生活의 경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힘 혹은 한基本的인 方法으로 變形될 수가 있는 性質의 것이다。그러므로 暴力은 人間生活에 있어서의 어떤 特定한 狀態를 意識과 行動의 양면에 기여하게 된다。세계의 위대한 宗教의 傳統은 이 사실을 수세기에걸쳐 확정적였다…한때 어떠한 특수한 傳統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강각하기도 했지만、人間生活의 知覺에있어서의 自動的인 關連性에관한 이 認識을 物理學者 Werner Heisenberg가 다음과 같이 陳述해 놓았을 때 自然科學에서도 그類例를 찾아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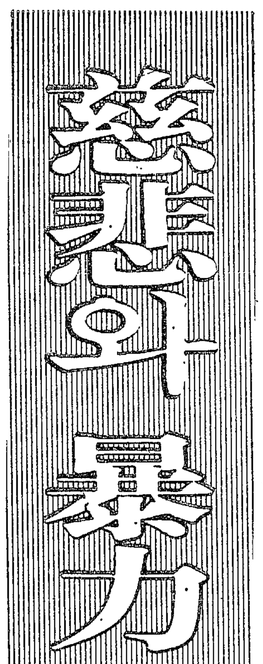
人間의 宗教生活에 공통되는것은 우리를 개인의 經驗과 社會的 活動을 초월적 상황속에 基本的으로 놓여지는 意識이다。이 「영원한」 「絶」으로서 혹은 「慈悲」 혹은 「法」으로 이와같은 상황속에서의 暴力은 단순히 基本的으로는 一定한 相을 없는것이다。一面이 나타나면 一面만이 들어날때도있고、또 혹은 一面이 다른것은 因緣으로 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行爲가 있으면 憎世音菩薩은 瞋面을 나타내어 이를 調伏한다…」

우리는 그의 긴 설명을 여기에 전부 다 인용할 수가 없다。우리는 여기에 引用한 몇개의귀절을 통해서도 불교의 慈悲가단순히 無分別하고 나이브한 態度가 아니라 매우 定한 相을 없는것이다。一面이 나타나면 一面만이 들어날때도있고、또 혹은 一面이 다른것은 因緣으로 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行爲가 있으면 憎世音菩薩은 瞋面을 나타내어 이를 調伏한다…」

매번 敎化를 함에 있어서 一定한 相을 없는것이다。혹은 十一面이 나타나고 또 혹은 一面만이 들어날때도있고、또 혹은 一面이 다른것은 因緣으로 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行爲가 있으면 憎世音菩薩은 瞋面을 나타내어 이를 調伏한다…」

우리는 그의 긴 설명을 여기에 전부 다 인용할 수가 없다。우리는 여기에 引用한 몇개의귀절을 통해서도 불교의 慈悲가단순히 無分別하고 나이브한 態度가 아니라 매우 定한 相을 없는것이다。一面이 나타나고 또 혹은 一面만이 들어날때도있고、또 혹은 一面이 다른것은 因緣으로 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行爲가 있으면 憎世音菩薩은 瞋面을 나타내어 이를 調伏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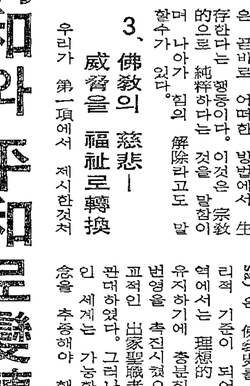
우리는 그의 긴 설명을 여기에 전부 다 인용할 수가 없다。우리는 여기에 引用한 몇개의귀절을 통해서도 불교의 慈悲가단순히 無分別하고 나이브한 態度가 아니라 매우 定한 相을 없는것이다。一面이 나타나고 또 혹은 一面만이 들어날때도있고、또 혹은 一面이 다른것은 因緣으로 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行爲가 있으면 憎世音菩薩은 瞋面을 나타내어 이를 調伏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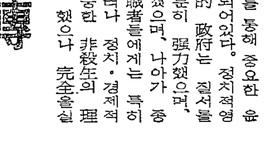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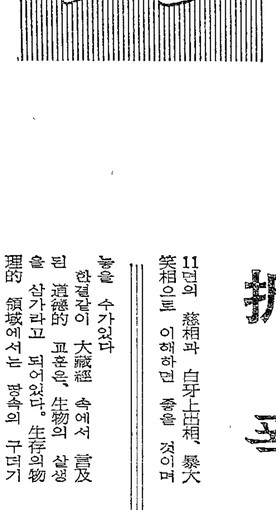
慈悲만이 暴力을調和와 平和로變轉

"暴力은 一種의 새로운 自我認識條件

他人愛는 舞踊"







折伏·攝受의 힘은 마음의 淨化 있어야

護國佛教, 剛柔兼全한 慈悲精神의 發顯

폭력은 原則의 유린, 實相에 대한 叛背

11면의 慈相과 白牙上出相, 暴大笑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며 여기의 折伏과 攝受를 우리는 앞서의 慈悲의 大乘的 精神에 입각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內延밖에는 못가지는 槪念이다。Terrorism이나 Violence가 다 우리 佛教人의 慈悲의 立場에서 되지않는 것이 아니다。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暴力이라는 말을 썼을때에는 인도말 Ahimsa (非暴力)에 반대되는 槪念으로 이해되어 한층그 뜻이 廣汎하다고 볼수가 있을것이다。

4、慈悲의 大乘的意味

한국 佛教는 대체로 수많은 폭력적 外儀를 容許하면서 살아왔다。佛教精神을 알지못한 열렬한 호국신자인 왕과 대신과 장군과 승려와 신도들이 폭력의 橫暴앞에서 그저 비판없이 순응하고 심지어 同調하여 侵略戰爭을 讚揚하기까지 하였다。이제 그 몇가지 例만을 들어보자。

①新羅人들은 十一面觀音을 깊이 신앙했고 석굴암本尊佛뒤에 彫像을 만들었는데、二十二面觀音의 각면에부여된 자비慈悲의 文武王을 비롯한 當代신라인들의 세민족국가건설의 염원이 되였였다。

②新羅의 고려두시대에 걸친 仁王護國經의 신앙은 侵入하는 폭력에 대처하여 般若의 힘을 빌어온 증거이다。

③高麗에서의 大藏經板의 雕造는 大藏經을 彫造하는 정성의 功德을 믿어온 暴力대한 또다른 표현이다。

④僧侶들을 맞은 李朝의 僧軍권기는 폭력에 대항한 朝鮮僧侶들의 慈悲魂을 나타내 보이는 實例이다。

⑤後代에 내려 올수록 教學은 形骸化되고 禪은 公案화하여 그 本來의 일체 자체를 眞實로 하는 방편이 결여되어 폭력을 이 형체 評價하는듯이 마땅하다고생각한다。

우리는 불교의 입장에서 폭력을 評價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原則에 두고 싶다。

①慈悲의 大乘的 精神에 입각한 것인가?

②佛教의 根本目的인 解脫과 涅槃에 부합되는가?

③佛教의 基本教理인 緣起의 理法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세가지 原則에 비추어 볼때 우리는 佛教의 慈悲精神에 입각한 폭력은 容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開校70周年紀念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特輯

留学英語
TOEFL問題読上 TEST
MEN & IDEAS
Y. Saint Laurent論…梁璨圭
第100回紀念 総目録…編輯室
独逸語読上講座…独逸文化院
Wooden Heart 外…徐丙厚
Fat Girl …B.Gill
英語 어휘 征服論…任永宰
考試英語 考試英語 豫想問題…吳済雲
医学英語 Special English : Medicine
News Analysis Arms Sales
An Essay Grandchild
映画台詞 最後의 銃잡이

時事英語研究 10월호 값 580원
The U.S. and the Soviet Union, 1917~76
〈美·蘇関係의 歷史的 考察〉…By George F. Kennan
The Unfulfilled Promise of Helsinki
〈헬싱키会談과 그 未解決의 課題〉…By Leonard H. Marks
The Intriguing Matter of Mao's Successor
〈中共의 権力闘争 陰謀劇〉…By Fox Butterfield
"Vital Change to Russian Thinking"
〈蘇聯 反体制 歷史學者 아말릭의 亡命辯〉…Interview with A. Amalrik
"America Is Still a Power in Asia"
〈프레이저濠洲首相 会見記〉…Interview with M. Fraser
이달의 主要記事
世界의 名演説 Jimmy Carter의 大統領 候補 指名 受諾 演説 全文

英語世界 10월호 값 450원
特輯 Ford vs. Carter on Defense Theory (防衛概念 변함없다)
The Campaign Trail Wave Good-bye to Tradition
(白亜館을 차지하려는 女心)…U.S. News & World Report에서
主要記事
Homo Sapiens (人間論)
Hypochondria is sick! (우울증은 病이다)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
Smoking and Health…The Washington Post에서
West of Eden (에덴의 서쪽)…Esquire에서
映画台詞 The Wind and The Lion —바람과 라이온—
젊은 世代에게 주는 글
生의 全盛期…N. Boswell
Man and God 〈人間과 神〉
How to Be Emotionally Happy
젊음과 희망…K. Gibran
中東日記 (「다마스커스」편)
이집트伝説 / 두 형제 이야기(3)
名作속의「러브·씬」 Thomas Hardy의 帰郷
現代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研究 / 英語会話 / 名文章 研究 / 英作文 / 취직·입시대비 영어모의 시험문제
教養칼럼 古典音楽 / 팝송 / 스포츠

韓国最初의 소리나는 雜誌
月刊 時事英語카셋트
The Study of Current English in Sound
10月特輯號
特輯 미국민주당 대통령 후보 Jimmy Carter의 指名수락演説
内声録音 (全量)
□ 세계의 名演説
□ 英語放送 뉴우스
□ 海外進出者를 위한 TOEFL聴取力 테스트
□ 英語 歌詞研究
毎月「時事英語研究」와 同時에 전국書店에서 発売함
C-60 카셋트 테이프 1개 값 2,000원 (Text 제외)
1年定期購入時 20,000원 (割賦可)
時事英語社 購入申請 (29) 6624~5

앞으로 留学試験은 TOEFL만으로!
時事英語社 発行 新刊
TOEFL總整理
著編 任永宰 梨花女大講師
研究·整理·実戦의 3단계 Approach
※ 이책은 흔해빠진 問題集이 아니라 実力을 보장해 주는 국내유일의 研究·整理·実戦의 3단계 解説書이다
구성
I. 豫備篇 : TOEFL문제의 성격·유형연구검토
II. Practice Test篇 : 최근에 出題된 문제해설
III. Do-It-Yourself篇 : 직접 풀어보는 예상문제
IV. GRE篇 : GRE안내 및 Sample Test
4·6倍 大型版 값 3,000원
TOEFL카셋트
※ "TOEFL카셋트"는 위 "TOEFL總整理"의 Listening Comprehesion 부분만을 실제 시험때와 똑같이 美国人이 녹음한 音聲教材이다
C-60 카셋트 테이프 1개 값 2,000원
全国書店에서 人気裡 発売中!
時事英語社
(26) 6795 (75) 5064 仁川 (3) 8758

特輯 佛敎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敎學術會議 〈開校 70周年紀念

理想으로서의 佛敎

優婆夷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佛敎에 있어 일반신도에 대한 게율과 知識의 가……○
르침은 승려에 대한 것과 등일하게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佛敎는 社會, 政治哲學을 제시하……○
며 그 목표는 人權이 보장되는 사회, 人間을 위한 사업이 成功의 열쇠인 사회, 자원이 공정……○
히 분배되는 社會, 그리고 정의가 지배되는 社會이다. <本文中리리·드·실바의 論文중에서>……○

官能主義的 社會風潮의 原因

科學的 知識이 人間을 회의적으로 만들어 그의 文化史的 遊産으로부터 遊離시키는 동안, 科學技術은 人類로부터 創意性을 탈취해 갔다. 莫大한 生産力을 갖춘 機械는 人間을 顯縮한 스위치造作工으로 轉落시켰으며, 수많은 勞動者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그들의 肉體的 창조적 능력은 보호되지 않은채 不利하고 좌절된 狀態로 버려졌다. 그結果로서 昇華된 情緖의 表現인 모든 國家의 十着民俗藝術이 거의 종식되어가고 있다. 이제 인간은 그의 창조에 대한 熱望에서, 그리고 自己表現에의 연약한 본부터에서멀 동물 수준가 되어가고 있는것이다.

現代人을 송두리채 壓倒하고 있는 두번째의 힘은 商業化의 廣告이다. 生産이 消費를 앞지를때에는 在庫의 增加를 막기위해서 消費者로 하여금 더 많이 消費하도록 說得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故意的으로 計算된 試圖를 이 傳統的인 儉約을 消費의 倫理로 轉換시키기 爲해 實施되였다. 세종게 獲得된 豊饒한 삶의 維持를 爲한 消費 增加의 必要性으로서 사람들을 說得하기위해 大衆 媒體가 動員되었다. 動機心理學과 行爲心理學의 硏究는 人間의 感情을 속이고 官能的인 즐거움, 個人的 榮達과 社會的 名聲을 追求하는 內的 貪欲이라는 人間의 弱點에서 廣告業者는 資産을 蓄積하는 것이다. 文化的 荒蕪地에서 자란 젊은이들은 節制하지못하고 自身의 創造欲이 挫折된 現代人은 大衆媒體의 誘惑的 呼訴에 屈服하고 自己 耽溺의 生活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佛敎가 도움이 될것인가

佛敎는 지난 25세기 동안 수많은 人類를 이끌어온 原理였으며, 그들을 文明化한 위대한 힘이였다. 佛敎가 오늘의 혼란된 狀況에서 그 어떤 빛을 비추고있으며, 현대의 조건에서 전전한가 정과 對人關係를 위해 糧를 제공하는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불교가 生

優婆夷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佛敎에 있어 일반신도에 대한 게율과 知識의 가……○
르침은 승려에 대한 것과 등일하게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佛敎는 社會, 政治哲學을 제시하……○
며 그 목표는 人權이 보장되는 사회, 人間을 위한 사업이 成功의 열쇠인 사회, 자원이 공정……○
히 분배되는 社會, 그리고 정의가 지배되는 社會이다. <本文中리리·드·실바의 論文중에서>……○

官能性과 人間의 野望

富…富에 관한 佛敎의 態度는, 富의 獲得에는 결코 그 限을 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올바른 手段으로서 獲得할 것이며 올바른 方法으로 사용할 것을 말하는 것 뿐이다. 他人을 해치거나, 속이거나, 僞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한 富의 획득은 높이 칭찬되고 있다. 또한, 富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多小를 막론하고, 사람은 그의 財物을 그나름의 방법으로 가장 正當하고 가장 유효하게 잘 사용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佛敎에 있어서 打楽되는 것은, 過度한 貪欲과 蓄財의 惡習이다. 吝嗇함을 輕蔑하나, 勤儉을 德으로서 칭송된다. 浪費는 打楽할 습관이며, 심지어는 反社會的이라고까지 여겨진다.

한번은 阿難이 布施 받은 것을 숭려는 어떻게 처리한으로써 利用하는 가에 관해 어느 王에게 설명했다. 「세 가사를 布施받으면, 헌것은 이불보로 사용하며, 헌 이불보는 탑자로서 사용되고 헌 탑자는 걸레로서 사용한다. 헌 걸레는 진흙과 함께 이겨서 바르나 벽틈을 메우는데에 사용한다고 말한다.

지구의 자원이 무제한한 것이 아닌 말를 현대인은 무언가 재해야 할필요이며 불교인들의 경

리리·드·실바
▲스리랑카大敎授

佛敎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敎學術會議 開催

제적인 習俗을 장려해야할 때인 것이다. 海洋學이 미개척의 자원을 일루에게 제시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나, 海洋 역시 한정된 것이며, 인간의 욕심에는 한정도 한계도 있을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性…불교는 性的인 인정을 보편적 현실로서 인정한다.

一夫一妻制도를 그 理想的 결혼의 형태로서 보며, 정숙과 充

他心이 필요한 개성의 적응이나 정서적 개입은 無視되고 否定되어서 한 중요한 오건이지만 그것이 가정 생활의 전부이고 목표인 것은 결코 아니다. 性만을 위한 性에의 耽溺은 결코 만족이나 충족을 가져오지 않는다. 欲情의 不可充足性에관하여는 「개가 그 꼬부림을 채우기위해 뼈를 핥는다」는 전통적인 比喩를 들어 佛敎에 의하면 숨과 色은 人間의 精神的 低

佛敎와 現代社會의 官能的 風潮

佛敎는 多樣한 人生哲學

一切唯心 內在한 可能性 發見을 不道德은 欲情·顚倒된 價値觀招來

의 殺戮이 자행될 것이다. 그와같은 大量殺戮이 지난후, 살아남은 소수의 불쌍한 존재들은 상호간의 동반에서 위안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서로를 다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심경의 변화와 함께, 도덕적 가치관도 점진적으로 재편하기 시작하고, 차차로 좋은 생활이 복구되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육체적 아름다움도 다시 나타나고, 수명도 길어

開校 70周年紀念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 特輯

現代人을 위한 生活

○…… 佛教는 지난 25세기등안 人類를 救濟해온 原理였으며 文明化의 위대한 힘이었다。佛教가 오늘의 혼
○……란된 상황에서 그 어떤 빛을 비추고 있으며 現代的 조건에서 건전한 가정과 對人관계를 위해어
○……떠한 智慧를 제공하는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佛教가 생존을 부정하는 慾欲的
○……이며 反社會的이며, 非政治的이라는 批判이 있으나 佛教는 比丘, 比丘尼뿐만 아니라 優婆塞,

1。現代社會

오늘날의 人類社會는 눈부신 變轉을 거듭하고 있다。高度로 발달된 現代文明은 人間을 지극히 행복스럽게 하여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人間이 행복스럽기만 한 것을 결코아니다。어느 의미에서는 일찌기 인간이 經驗하지 못한 不幸을 안고 아가고 있는 것도 否認할수 없는 일이다。機械文明이 高度로발달하여 現代社會를 外觀上으로는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반면 思想面에서 政治面에서 또는 經濟面에서 深刻한 抗爭을 지속하여 物質世界와 精神世界는 서로의 調和를 잃고 보기 흉한 破行狀態를 들어내고 있다。이러한 兩者의 破局으로 말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現代社會의 병정을 「르네쌍스」에까지 소급된다。「르네쌍스」에 있어서 인간들을 「神中心의 思想」을 人間中心의 思想으로 바꾸였다。이 人間中心의 思想은 자아의 자각을 촉구하였고, 이 自我의 자각은 人間理知의 해방을 동반하였다。이러한 人間存在의 根源的 轉換을 歐州社會의 政治·經濟·文化등 모든 분야에 있어

開校70周年紀念〉 佛教와 現代世界에 관한 世界佛教學術會議 特輯

第一分科

現代國際社會의 理念的混迷와 佛教

問題를 佛教는 그 가진바 智慧로서 어떻게 活用할 수 있을것인가를 질문했다。이것은 佛教의 理念을 現實속에 적용시키려는 方法論의 「第2小主題=共産主義의 挑戰에 直面한 佛教」 第2小主題는 東國大의 鄭泰爀敎授와 日 岐阜敎大의 마끼다博士가 主題發表를 했다。마끼다 박사는 특히 「中共에 있어서의 佛敎의 存在」라는 主題를 다루었는데 淸나라 末期에 活躍했던 佛敎는 佛敎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內部에서 야기되는 方法論등이 모두 불교를비롯한 諸宗敎의 根本敎理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發表했다。이를테면 종교의 달성을 목해 唯物論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 主題에 대해서는 민경원(東大)、日佛敎大의「에다니·류까이」 티벳의「페마갈포」敎授가 討論에 참가하여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는데 페마교수는 共産化된 티벳에서의 佛敎역압의 책성한 모습을 전함으로써 많은 共感을 얻었다。

「第3小主題=慈悲와 폭력」 美 南加리敎大의 스트윙 박사는 主題發表에서 폭력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人生發生的 自己主張의 否定的 形態」라고 하고 그것을 人間의 욕망에서 야기되는 不充足 공포등의 心理的 要因이라고 지적했다。스트윙 박사는 그러므로 人間의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양의 智慧를 여섯가지로 열거한 다음、불교와 관동의 힌두敎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박사는 불교가 두가지 상반된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極東諸國의 大乘佛敎圈에서는 內的이고 정신적이며 철학적인 사상경향이 발전되었고、다른 하나는 판동적이고 변혁적인 세계로 變轉되었으며、불교의 위대한 倫理는 이 두가지를 균등하게 있게 전성하는 가운데에서 발전되었다고 결론지었다。

「第4小主題=現代人의 精神的 危機와 禪」 일본大正大學校 關口眞大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關口박사는 근대정신의 특성을 개인권의 중심사상、그리고 生産能率·利益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성을 輕視 내지 무시하게 되는 국제관계에 內在하는 自己矛盾·自己否定을 강조하고 있다。

原始佛敎學者 三枝박사도 平和와 協力의 원리를 니르바나와 緣起에서 찾았고、이것들은 平和와 協力그 자체를 깊이 반성 自覺케하면서、平和와 協力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을 북돋힘하고 리드하고 指導해 간다고 지적한다。특히 그는 개인이나 사회·국가 또는 국제관계에 內在하는 自己矛盾·自己否定을 깊이 자각하고 佛敎倫理에 의해 物質과 人間의 복술을 존중하는 경제이론의 수립을 촉구했다。

「第3小主題=現代의 社會風潮와 佛敎」 이번 회의의 유일한 女性 발표인 佐佐木박사는 우선 동양의 宮能을 여섯가지로 열거한 다음、불교와 관동의 힌두敎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박사는 불교가 두가지 상반된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極東諸國의 大乘佛敎圈에서는 形式的이고 정적이며 철학적인 사상경향이 발전되었고、다른 하나는 판동적이고 변혁적인 세계로 變轉되었으며、불교의 위대한 倫理는 이 두가지를 균등하게 있게 전성하는 가운데에서 발전되었다고 결론지었다。

「第4小主題=現代人의 精神的 危機와 禪」 일본大正大學校 關口眞大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關口박사는 근대정신의 특성을 개인권의 중심사상、그리고 生産能率·利益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성을 輕視 내지 무시하게 되는 국제관계에 內在하는 自己矛盾·自己否定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는 길은 禪을 통해 가능한데、禪은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참의 발현을 發見·發揮케 하며、外的인 상황을 자기와 일치시켜 人間本然의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無我·空·不可得·無等이 不安·속박등의 실상을 꿰는 능력을 발휘시키는 조건이며、禪의 내가 융합되고 東西가 融和로울수 있는 禪의 大道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第5小主題=佛敎의 敎育理念」 일본 奈良敎育大學 阿部正雄박사와 본교 金煐泰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阿部박사는 「禪의 敎育、禪師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副題를 달고 있듯이、禪師와 弟子사이의 1대1관계에서 力動的을 重視하고 있다。인간의 本性을 자각시키는 禪敎育은、올바른 法에 눈뜬 위대한 스승이 信仰心과 진정한 疑心이 깊이진 新參 弟子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慶喜法을 말함하는데 있다。스승의 가끔 무서운 폭력은 外部에서보다 스승 이것은 佛敎의 理念的 混迷 속에서의 佛敎의 思想的 혼돈 속에서의 佛敎의 「第1小主題=平和와 協調의 原理로서의 佛敎」 이 小主題는 인도 델리大學校의 철학주임인 R·C 판데야박사와 일본 筑波大學校 三枝充悳박사가 主題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비중 크고 가장 많은 발언을 근엄하게 했던 판디야박사가 주장한 내용의 결론 요지는、불교는 人間構造와 再組織을 위한 生命力 있는 원리로서 활동할수 있으며、改革의 敎說을 펴며 사람이나 사회의 잘조하는 불교는 個體의 集團을 깨닫게해、극단적 邪見이 초래하는 인간 苦痛을 더욱와 大惡의 方法으로 극복시켜 주며、점차적으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투쟁대신 평화로 전환시켜 준다는것이다。

또 그는 慈欲的 生活이나 명상、내림생활 그리고 懺悔가 理想實現을 돕는다고 지적하면서 平和나 協力을 실천 노력으로 가장 무서운 폭력은 外部에서보다 스스로 이것은 佛敎의 理念的 混迷 속에서의 佛敎의 思想的 혼돈 속에서의 佛敎의 「第1小主題=平和와 協調의 原理로서의 佛敎」 이 小主題는 인도 델리大學校의 철학주임인 R·C 판데야박사가 主題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비중 크고 가장 많은 발언을 근엄하게 했던 판디야박사가 주장한 내용의 결론 요지는、불교는 人間構造와 再組織을 위한 生命力 있는 원리로서 활동할수 있으며、改革의 敎說을 펴며 사람이나 사회의 잘조하는 불교는 個體의 集團을 깨닫게해、극단적 邪見이 초래하는 인간 苦痛을 더욱와 大惡의 方法으로 극복시켜 주며、점차적으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투쟁대신 평화로 전환시켜 준다는것이다。

또 그는 慈欲的 生活이나 명상、내림생활 그리고 懺悔가 理想實現을 돕는다고 지적하면서 平和나 協力을 실천 노력으로 가장 무서운 폭력은 外部에서보다 스스로 이것은 佛敎의 理念的 混迷 속에서의 佛敎의 思想的 혼돈 속에서의 佛敎의 「第1小主題=平和와 協調의 原理로서의 佛敎」 이 小主題는 인도 델리大學校의 철학주임인 R·C 판데야박사가 主題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비중 크고 가장 많은 발언을 근엄하게 했던 판디야박사가 주장한 내용의 결론 요지는、불교는 人間構造와 再組織을 위한 生命力 있는 원리로서 활동할수 있으며、改革의 敎說을 펴며 사람이나 사회의 잘조하는 불교는 個體의 集團을 깨닫게해、극단적 邪見이 초래하는 인간 苦痛을 더욱와 大惡의 方法으로 극복시켜 주며、점차적으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투쟁대신 평화로 전환시켜 준다는것이다。

또 그는 慈欲的 生活이나 명상、내림생활 그리고 懺悔가 理想實現을 돕는다고 지적하면서 平和나 協力을 실천 노력으로 가

記·錄 鄭柄朝 〈嶺南大〉

第二分科

西歐佛敎界 土着化를 모색 宗敎間對立 寬容으로 해소

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主題의 튀르트박사도 선구에서의 佛敎연구가 학문적 관심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발표하면서 他宗敎人으로서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다소 갈망적인 利用佛敎로 전락하게되고 말았다는 것이 佛敎의 자유로운 성장을 막아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결국 유럽에 있어서 아직 「연구단체」적인 정격을 띠우는것에 그치고 있다는것이다。

第4小主題의 토론에서 갈리교授는 「理念的 근거로서 緣起」에 대한 佛性 有佛性등의 전통적 敎理를 제시하였다。한편 브라이비아 大學의 이마·손오따로박사는 이슬람、기독교도들 간의 격렬한 투쟁속、초월한 인간의 보편화、복지시설、街頭傳道、청년회、부인회、소년회의 조직등을 통하여 적극적 포교를 언급하였다。

한편 討論과정에서 유동식(延大)교수는 고타진교수의 발표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의 安樂을 위하여、많은 사람의 利益을 위하여、世間에 대한 慈悲를 실천하는 인격적 傳道者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宗敎를 위협하는 요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고 말하고 그 원인가 하는 문제를 들고나와 討論을 벌였다。

記·錄 睦楨培 〈佛敎大學生〉

第三分科

佛敎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적합한 종교인가?

「第1小主題=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乘菩薩의 理想」 第1小主題는 日 東京大의 鏡田茂雄박사와 東大의 洪庭植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鄭泰爀敎授는 理念的인 관점에서 佛敎와 현실을 비교하였다。鄭교수는 佛敎와 현실과의 괴리를 말하고 철두철미 종교의 自然觀、人間觀에 의해 자연과 인간사이의 分離·對立관계가 是正되고 양자의 관계는 回復될수 있다고 指摘하였다。

「第2小主題=現代社會에 있어서의 佛敎의 이념」 第2小主題는 벨기에 루뱅大學의 「F·우머르」박사와 中國文化院大의 張曼濤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우머르박사는 東南아시아에 있어서의 佛敎와 정치와의 관계、특히 사회상과 불교와의관계를 관련시켜 주제발표를 하였다。그는 현재 월남을 제외한 全東南아시아 국가들은 강한 小乘佛敎의 영향하에서 생성되었는데 그것은 다시 식민지시대에 있어서의 西歐化경향、僧團의 퇴보로 말미암아 점점 위축되는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따라서 東南아시아에서는 엘리트 佛敎를 위한 기반、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지도적 조직이 불교에 요구된다고 보았다。다시 말하면 사회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승가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민경원(東大)、日佛敎大의「에다니·류까이」、티벳의「페마갈포」敎授가 討論에 참가하여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는데 페마교수는 共産化된 티벳에서의 佛敎역압의 책성한 모습을 전함으로써 많은 共感을 얻었다。

「第3小主題=慈悲와 폭력」 美 南加리敎大의 스트윙 박사는 主題發表에서 폭력이라는 것을 규정하여 人生發生的 自己主張의 否定的 形態」라고 하고 그것을 人間의 욕망에서 야기되는 不充足 공포등의 心理的 要因이라고 지적했다。스트윙 박사는 그러므로 人間의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양의 智慧를 여섯가지로 열거한 다음、불교와 관동의 힌두敎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박사는 불교가 두가지 상반된 삶의 길을 제시하는데、極東諸國의 大乘佛敎圈에서는 形式的이고 정적이며 철학적인 사상경향이 발전되었고、다른 하나는 판동적이고 변혁적인 세계로 變轉되었으며、불교의 위대한 倫理는 이 두가지를 균등하게 있게 전성하는 가운데에서 발전되었다고 결론지었다。

「第4小主題=現代人의 精神的 危機와 禪」 일본大正大學校 關口眞大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關口박사는 근대정신의 특성을 개인권의 중심사상、그리고 生産能率·利益을 중시한 나머지 인간성을 輕視 내지 무시하게 되는 국제관계에 內在하는 自己矛盾·自己否定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는 길은 禪을 통해 가능한데、禪은 자신을 깨닫고 스스로 참의 발현을 發見·發揮케 하며、外的인 상황을 자기와 일치시켜 人間本然의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無我·空·不可得·無等이 不安·속박등의 실상을 꿰는 능력을 발휘시키는 조건이며、禪의 내가 융합되고 東西가 融和로울수 있는 禪의 大道를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第5小主題=佛敎의 敎育理念」 일본 奈良敎育大學 阿部正雄박사와 본교 金煐泰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阿部박사는 「禪의 敎育、禪師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副題를 달고 있듯이、禪師와 弟子사이의 1대1관계에서 力動的을 重視하고 있다。인간의 本性을 자각시키는 禪敎育은、올바른 法에 눈뜬 위대한 스승이 信仰心과 진정한 疑心이 깊이진 新參 弟子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慶喜法을 말함하는데 있다。스승의 가끔 무서운 폭력은 外部에서보다 스스로 이것은 佛敎의 理念的 混迷 속에서의 佛敎의 思想的 혼돈 속에서의 佛敎의 「第1小主題=平和와 協調의 原理로서의 佛敎」 이 小主題는 인도 델리大學校의 철학주임인 R·C 판데야박사가 主題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비중 크고 가장 많은 발언을 근엄하게 했던 판디야박사가 주장한 내용의 결론 요지는、불교는 人間構造와 再組織을 위한 生命力 있는 원리로서 활동할수 있으며、改革의 敎說을 펴며 사람이나 사회의 잘조하는 불교는 個體의 集團을 깨닫게해、극단적 邪見이 초래하는 인간 苦痛을 더욱와 大惡의 方法으로 극복시켜 주며、점차적으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투쟁대신 평화로 전환시켜 준다는것이다。

또 그는 慈欲的 生活이나 명상、내림생활 그리고 懺悔가 理想實現을 돕는다고 지적하면서 平和나 協力을 실천 노력으로 가

記·錄 金仁德 〈佛敎大學生〉

第二分科

教育目標와 佛敎理想의 同一 危機 克服은 禪 生活化로

표자인 스리랑카대학교의 릴리 드실바박사와 일본 大谷대학교의 佐佐木現順박사가 발표했다。

실바박사는 「主題를 폭넓게 보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음、불교는 현대의 문화이며 성숙한 인생철학이며 세속적 종교적 필요성을 충족하는 종교라고 지적하면서 平和와 協力을 실천 노력으로 가

서、인류의 生存을 위협하는 공해가 증대함도 말했다。이러한상황에서 인간성 재발견이 緊要한 과제이며、인간의 재발견은 진실한 발견하는 것 (直指人心見性成佛)인 禪에 의해、그런 사회환경에 대응할수 있다고 주장한다。특히 身·息·心의 三事를 조화롭게 하는 禪을 올바르게 生産性향상의 原動力이 갖추어지고、禪定과 般若 二法을 원만케 均齊하게 하는 禪을 生産의 근원에 대한 노동과의 관계를 불교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李哲鎭교수는 더욱 적극적 생산을 주장하였다。僧伽의 經典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僧伽生活이 非生産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자연히 僧伽의 대부분이 농업을 종사하게 되었다。僧伽의 노동은 종교적 儀式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生産을 救援하는 손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僧伽의 근엄한 노동과의 유익한 생산을 營度하는데서 衆生을 濟度하는 모색이 장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第4小主題=佛敎에 있어서의 出家와 在家의 倫理」

日、駒澤大 水野弘元博士는 出家者와 在家者를 善導하는데 있어 因果業報說에 의하여 世間的 戒律道德과 業報를 超越하여 出世間的인 戒律倫理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施論(Dana Katha)·生天論(Sagga Katha)·戒論(Sila Katha)·生天論 등 이들의 功利的、他律的인 道德論이며、그러나 出世間的인 倫理는 自律的인 戒律을 기반하지 않고 악을 끊고 착함을 행동하는 自主、自律的인 것이다。

불교의 특색 戒觀은 「平常心이 道」라는 실천적 행위에 있는것이다。또한 李鍾絃교수는 戒란 외형적인 형식만을 가지고 『지니다、지니지 못한다』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內心의 정립 바르고 깨끗하여야 한다고했다。

「第5小主題=布敎의 現代化에 관한 문제」

日、現大谷大 雲井교수는 比丘들에게 권력과 재산을 위하여、많은 사람의 安樂을 위하여、世間에 사람 한 慈悲를 위하여、두사람이 한 길을 가지말라고 하였다。또 佛陀의 전도도는 正見에서 출발하여야 한다。正見을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본다는 것이다。불타의 敎說은 사람이 日常生活속에서 菩薩行을 실천하는 인격적 傳道者가、文書布敎보다 직접적인 포교를 강조하였다。

또한 宗敎의 보편화、복지시설、街頭傳道、청년회、부인회、소년회의 조직등을 통하여 적극적 포교를 언급하였다。

한편 討論과정에서 유동식(延大)교수는 고타진교수의 발표에 관련하여 많은 사람의 安樂을 위하여、世間에 대한 慈悲를 실천하는 인격적 傳道者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또한 宗敎를 위협하는 요인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있다고 말하고 그 원인가 하는 문제를 들고나와 討論을 벌였다。

또한 동일한 小題로서 洪庭植박士는 現代社會는 기계문명이고 세계가 하나로 지남 8월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佛敎와 現代社會」란 주제의 世界佛敎學術會議가 열렸다。 3分科로 나눠 발표, 토의된 이번 학술會議의 제1分科는 「現代 國際社會의 理念的 혼돈속에서의 佛敎의 位置」를 主題로, 제2分科에서는 「現代人을 위한 生活理想으로서의 佛敎」를, 제3分科에서는 「佛敎는 現代社會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였다。 各分科는 同 主題下에 5개씩의 小主題를 發表,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佛敎的 諸問題에 대해 세계적 10개國學者들이 의견을 교환했다。本文은 이 學術會議에서 發表, 토의된 內容들을 간추린 것이다。

○○○○○○○○○

○○○○○○○○○

○○○○○○○○○

主題發表를 한 宮林昭彦(日、大正大) 교수는 僧院의 勞動을 「作務」라고 하면서 百丈이 주장한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란 대표적 표현을 들고、그러나 出家者가 土地를 耕作하는 것은 破逸提罪라고 하였다。원시불교시대에는 僧伽生活이 고수하는 東南아시아 佛敎는 일반사회、즉 世俗的인 것은 僧伽에 의존하였으나 중국佛敎인 禪宗에서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승가의 自給自足을 大乘的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生産을 勞動生産의 관계를 時食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의 경제를 주장하였다。

僧伽의 노동과 生産을 救援하는 손길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토론 發表者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慈悲는 調和의 에너지 佛敎 現代化 方向모색

記·錄 睦楨培 〈佛敎大學生〉

社告

第14回 東大新聞社 學術賞作品募集

그동안 東國人 여러분의 聲援에 힘입어 長足의 發展을 해온 本社 施賞 學術賞은 今年으로 14回를 맞게 되었읍니다。

學生들의 學究熱과 創作熱의 振作을 위해 制定된 本 學術賞 作品募集에 적극 應募바랍니다。

◇學術賞 種目

▲人文社會科學賞
▲自然科學賞
▲創作文學賞
※各分野別 장려상 있음

◇應募要領

▲人文社會科學·自然科學分野=2백字원고지 60枚內外 所屬學科學術論文에 限함

▲創作文學分野<詩>5편이상<小說>60매이내 <戲曲>60매 이내
▲應募資格=本校 學生에 한함
▲심사위원=본사에서 위촉하며 當選作 發表와 함께 발힘
▲施賞=各分野別 상장 및 상금 5만원
▲作品제출기간=10월1일부터 10월15일
▲當選作발표=10월하순경 本紙上

1976년 9월

東大新聞社

失學生證紛失

김형수	(토목·4)	
유홍록	(농학·1)	
최조구	(사교·1)	
권태석	(식공·3)	
신진선	(토목·3)	
이윤행	(영문·3)	
박기문	(정치·1)	
최진선	(국문·1)	
이근성	(조수·2)	
김 源	(수학·2)	
조규철	(무역·3)	
어 경	(무역·2)	
이상윤	(경행·2)	
최병국	(인철·1)	
김상곤	(경제·2)	
정찬희	(경제·1)	
강혁자	(전자·3)	
정주호	(건축·3)	
이형호	(경행·2)	
장영태	(토목·2)	
김병우	(경제·3)	
김영숙	(미술·1)	
이기훈	(토목·2)	
이점윤	(가교·1)	
정성희	(수교·3)	
강태윤	(식공·2)	
이동문	(전공·4)	
송갑진	(공경·1)	
이기형	(농경·1)	
배종대	(조경·2)	
정문호	(언영·2)	
김종대	(경행·3)	
이근성	(법학·2)	
김 源	(법학·2)	
조규철	(경행·1)	
어 경	(전자·3)	
이상윤	(건축·3)	
최병국	(물리·1)	
김상곤	(경영·2)	
정찬희	(가교·2)	
강혁자	(가정·2)	
정주호	(전자·1)	

祝 開校70周年紀念 世界佛敎學術會議

대림산업주식회사 부사장 이 준 원
동국제강주식회사 부사장 장 상 건
동남방적주식회사 전무이사 유 주 성
안국약품주식회사 전무이사 이 현 경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상무이사 김 창 승
한국생사주식회사 상무이사 이 주 희
대한유리공업주식회사 상무이사 김 무 승 (무순)

首席·優等生 全體 百74名

2學期 獎學生 名單 發表

◇이우정君

學生處에서는 지난 4日 76學年度 제2학기 首席및 優等獎學金 수혜대상자를 확정, 發表했다.

이번에 선발된 獎學生은 1학년 41名 (首席=김보성·數政), 2學年 43名 (首席=김형진·史憲), 3學年 45名 (首席=박상훈·經營), 4學年 45名 (首席=이우정·政治) 등 총 1백74명인데 首席獎學生은 이우정君외 41명, 優等獎學生에는 유영중 (영문·2) 君의 1백33명이다.

이번 學期의 優等獎學生수는 지난 學期의 1백36명보다 38명이 증가된 것으로 學生들의 高潮된 學熱을 나타냈다.

특히 首席및 優等獎學生 가운데 75年 12月에 實施한 獎學生選拔試驗에서 首席을 차지했던 이우정君이 역시 전체首席을 차지해 注目을 끌었다.

優等獎學金은 20學點以上을 取得하고 前學期 성적이 平均 85點以上으로서 7월에 실시된 성적의 점수으로 결정되었는데 수업료 반액이 지급되며, 首席獎學金은 各科진체 (1, 2, 3, 4年) 首席으로 수업료 전액이 지급된다.

한편 76學年度 第1學期에 選拔된 외부장학생은 2학기에도 계속 장학금이지급된다.

(首席및 優等獎學生 名單은 1面 廣告欄에)

敎養學部讀書콩쿨 1등에 윤재웅君

敎養學部 6·7·8등서 종루르가 지난 11일 (土), 敎養學部도서실에서 실시된 제7회 전국 大學文化藝術 祝典 大學美展에서 본교美術 학생 吉喜淑양이 제2부새마을운동 주제 작품부에서 特選을 차지했다. 9月 13日 (월) 오후 2시 30분부터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 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兵務行政敎育講演 15日中講堂서開催

76학년도 대학생 부기관과 전국 一般企業體에 총 1백여명이는 높은 就業率을 나타냈다. 또한 各企業體로부터就業알선 요구가 계속답지하고있다.

電算院 취업률 好調 三星 6名등 百餘名 進出

電子計算院 (院長=錢昌源博士) 76學年度 修了者就業現況이 지난 4일밝혀졌다.

國內 E·D·P·S 要員 養成의 産室인 本校 電算院은 75년 開院이래 첫 修了者를 냈는데, 지난 4일 현재 修了者중 金輔允군外 6名이 三星구룹에 입사한 것을 비롯 경제기획원등 정부기관과 전국 一般企業體에 총 1백74명이는 높은 就業率을 나타냈다. 또한 各企業體로부터就業알선 요구가 계속답지하고있다.

兵務行政敎育講演 15日中講堂서開催

76학년도 대학생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무행정에 관한 교육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무행정에 관한 교육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李瑄根總長이 베푼 리셉션에參席次 來校하여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한 「비르칠·게오르규」부처.

大學美展 31點 入賞

吉喜淑양 文敎部長官賞

제7회 전국大學文化藝術 祝典 大學美展에서 본교美術 학생 吉喜淑양이 제2부새마을운동 주제 작품부에서 特選을 차지했다. 9月 13日 (월) 오후 2시 30분부터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무행정에 관한 교육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는등 敎部·文公部·韓國藝術文化團體총연합회 후원으로 부 일반작품부, 2부 새마을운동 주제 작품부로 구분, 지난 27일 입상자를 발표한 이번 대학미전에는 3천여명이 응모했는데, 본교 미술과에서는 1, 2部에 조각 15점, 西洋畵 12점, 東洋畵 6점을 출품, 서양화에서 2점이 낙선했으나 출품자 전원이 入賞하는 유례없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美術科의 한 관계敎授는 『6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타대학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이번 성적은 본교 미술과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가워 했다.

이번 美展에 장려작이상으로 입상된 작품을 6일부터 11일까지 역사관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수상자 명단과 作品名은 다음과 같다.

▲文敎部長官賞=吉喜淑(4)〈新天地·조소〉 ▲銅賞=吉喜淑(3)〈계곡·東洋畵〉, 趙美愛(4)〈새벽·조소〉 ▲장려상=羅宗星(4)〈늘 1768·西洋畵〉, 朴順子(3)〈놀뫼·조소〉, 김혜영(3)〈女人立像·〃〉, 李點元(2)〈冰蓮·〃〉, 李任秀(2)〈꿈이야기·〃〉, 홍남기(〃)〈작은물·〃〉, 趙淑姬(〃)〈가을에 온 女人·〃〉, 沈豐淑(1)〈TORSO-B·〃〉, 宋一鎬(〃)〈TORSO-2·〃〉 ▲入選=장정환(4·동양화), 정은용(〃·〃·2점), 조경숙(〃·〃·허만욱(4·서양화), 2점), 선우미경(〃·서양화), 장진호(3·〃), 이상록(〃·〃)·임인호(〃·〃), 장명국(2·〃), 윤만일(1·〃), 진순미(〃·〃), 민회란(〃·조소), 김윤희(〃·〃), 趙美愛(〃·〃).

敎養學部讀書콩쿨 1등에 윤재웅君

敎養學部 6·7·8등서 종루르가 지난 11일 (土), 敎養學部도서실에서 실시된 제7회 전국大學文化藝術 祝典 大學美展에서 본교美術 학생 吉喜淑양이 제2부새마을운동 주제 작품부에서 特選을 차지했다. 9月 13日 (월) 오후 2시 30분부터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무행정에 관한 교육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이번 敎育講演은 대학생 병무행정에 관한 교육과,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종토조성을위한 계몽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演士로, 학생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1시간 강연에서 열린다.

本校 學徒護國團을 再點檢한다

▲發國 1周年을 맞는 本校護國團은 면학과 호국하는 姿勢가 要求된다. <사진은 75年의 결열장면>

學徒護國團發國의 意義와 背景

中央學徒護國團이 발단된지도 지난 2일로 1주년이 되었다. 우리의 국가적 現實을 직시하고 一面 勉學, 一面 護國의 다짐아래 大學은 학문과 사색의 요람으로 제모습을 찾자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의 체질개선은일련의 학원소요사태로 늘어수선했던 학원가를 생각해 볼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어떻든 학도호국단이 창설된후 戀國街는제모습을 찾았다. 勉學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도호국단은 그간 구축, 76년도의 內實化, 조직화의 基本方向정립을 위해 本校 운영위원회 및 간부, 단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學徒護國團은 해체된 總學生會의기능을 대신한다. 즉 總學生會의 존업부에다 새로이 학도호국단으로서 재로운 업무량이 부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도호국단 護國에 다른 행사를 간추려 보면 호국행군, 격전지 탐방 순례, 국방학술 세미나 참석, 反共敎育강연회, 野營大會개최, 자체 교육걸렬, 국기게양·하강식 등이다.

즉, 이러 일련의 행사속에는 간부들의 지도능력 배양에 주력한 행사들이다.

開校 70주년을 맞이열린 東國 祝典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 성황을 거뒀다고 본다. 특히 민속예술 대제전, 연무대회, 고전민속놀이동은 새로운 기획과 민족 고유의 맥락을 계승하자는의미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그리나 올연자들의 미숙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東國 축전은 主題意識이 드러나지 않았다. 行事하나 하나에 東國의 얼을 드러내 축전 전체가 調和된 70년의 東國이나 타났어야 했었다.

그 많은 행사 중에서 宗敎祭, 옥야제가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學生들이 호응을 얻었고 佛敎 합창단의 佛敎合唱發表會 또한 佛敎音樂의境地를 개척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世界佛敎學術會議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수확을 거두었다. 主題發表에 나선 世界各國學者들의 열의나 토론 참가자들의 問題提起등이 모두 注目할만한 것.

이번 會議가 世界佛敎史上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韓國에서, 그것도 서울의 東國大學校에서 열렸음은 바로 韓國이 名門, 東國의 學的氣風이 그만큼 世界的인 레벨에 도달한 것이 아닐는지. 이러한 評價는 世界佛敎學界에서 先頭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반경은 초청한 일아 이래저래 國威을 선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開校70周年紀念 世界佛敎學術會議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수확을 거두었다. 主題發表에 나선 世界各國學者들의 열의나 討論 참가자들의 問題提起등이 모두 注目할만한 것.

이번 會議가 世界佛敎史上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韓國에서, 그것도 서울의 東國大學校에서 열렸음은 바로 韓國이 名門, 東國의 學的氣風이 그만큼 世界的인 레벨에 도달한 것이 아닐는지. 이러한 評價는 世界佛敎學界에서 先頭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반경은 초청한 일아 이래저래 國威을 선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幹部와 團員 一體化긴요

大學人의 책임과 의무 다해야

學術活動 不振은 反省할 점

한 大學의 체질개선은일련의 학원소요사태로 늘어수선했던 학원가를 생각해 볼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어떻든 학도호국단이 창설된후 戀國街는제모습을 찾았다. 勉學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도호국단은 그간 구축, 76년도의 內實化, 조직화의 基本方向정립을 위해 本校 운영위원회 및 간부, 단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學徒護國團은 해체된 總學生會의기능을 대신한다. 즉 總學生會의기존업부에다 새로이 학도호국단으로서 재로운 업무량이 부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도호국단 護國에 다른 행사를 간추려 보면 호국행군, 격전지 탐방 순례, 국방학술 세미나 참석, 反共敎育강연회, 野營大會개최, 자체 교육걸렬, 국기게양·하강식 등이다.

즉, 이러 일련의 행사속에는 간부들의 지도능력 배양에 주력한 행사들이다.

開校 70주년을 맞이열린 東國 祝典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 성황을 거뒀다고 본다. 특히 민속예술 대제전, 연무대회, 고전민속놀이동은 새로운 기획과 민족 고유의 맥락을 계승하자는의미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그리나 올연자들의 미숙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東國 축전은 主題意識이 드러나지 않았다. 行事하나 하나에 東國의 얼을 드러내 축전 전체가 調和된 70년의 東國이나 타났어야 했었다.

그 많은 행사 중에서 宗敎祭, 옥야제가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學生들이 호응을 얻었고 佛敎 합창단의 佛敎合唱發表會 또한 佛敎音樂의境地를 개척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世界佛敎學術會議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수확을 거두었다. 主題發表에 나선 世界各國學者들의 열의나 討論 참가자들의 問題提起등이 모두 注目할만한 것.

이번 會議가 世界佛敎史上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韓國에서, 그것도 서울의 東國大學校에서 열렸음은 바로 韓國이 名門, 東國의 學的氣風이 그만큼 世界的인 레벨에 도달한 것이 아닐는지. 이러한 評價는 世界佛敎學界에서 先頭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반경은 초청한 일아 이래저래 國威을 선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發國 1周年을 맞는 本校護國團은 면학과 호국하는 姿勢가 要求된다. <사진은 75年의 결열장면>

學徒護國團發國의 意義와 背景

中央學徒護國團이 발단된지도 지난 2일로 1주년이 되었다. 우리의 국가적 現實을 직시하고 一面 勉學, 一面 護國의 다짐아래 大學은 학문과 사색의 요람으로 제모습을 찾자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의 체질개선은일련의 학원소요사태로 늘어수선했던 학원가를 생각해 볼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어떻든 학도호국단이 창설된후 戀國街는제모습을 찾았다. 勉學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도호국단은 그간 구축, 76년도의 內實化, 조직화의 基本方向정립을 위해 本校 운영위원회 및 간부, 단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學徒護國團은 해체된 總學生會의기능을 대신한다. 즉 總學生會의기존업부에다 새로이 학도호국단으로서 재로운 업무량이 부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도호국단 護國에 다른 행사를 간추려 보면 호국행군, 격전지 탐방 순례, 국방학술 세미나 참석, 反共敎育강연회, 野營大會개최, 자체 교육걸렬, 국기게양·하강식 등이다.

즉, 이러 일련의 행사속에는 간부들의 지도능력 배양에 주력한 행사들이다.

開校 70주년을 맞이열린 東國 祝典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 성황을 거뒀다고 본다. 특히 민속예술 대제전, 연무대회, 고전민속놀이동은 새로운 기획과 민족 고유의 맥락을 계승하자는의미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그리나 올연자들의 미숙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東國 축전은 主題意識이 드러나지 않았다. 行事하나 하나에 東國의 얼을 드러내 축전 전체가 調和된 70년의 東國이나 타났어야 했었다.

그 많은 행사 중에서 宗敎祭, 옥야제가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學生들이 호응을 얻었고 佛敎 합창단의 佛敎合唱發表會 또한 佛敎音樂의境地를 개척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世界佛敎學術會議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수확을 거두었다. 主題發表에 나선 世界各國學者들의 열의나 討論 참가자들의 問題提起등이 모두 注目할만한 것.

이번 會議가 世界佛敎史上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韓國에서, 그것도 서울의 東國大學校에서 열렸음은 바로 韓國이 名門, 東國의 學的氣風이 그만큼 世界的인 레벨에 도달한 것이 아닐는지. 이러한 評價는 世界佛敎學界에서 先頭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반경은 초청한 일아 이래저래 國威을 선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護國의 鐘을 울리며

「一面 勉學, 一面 護國」의 다짐 아래 창단된 중앙학도호국단이 지난 2일로 창립 첫돌을 맞았다. 그간 1년동안 우리 대학이 학도호국단이란 새옷을 입은후 달라진 모습과 본교의 경우 호국단 토착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대학의 체질개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행사동을 비롯 문제점및 바람직한 호국학도상을 점검해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本校護國團諸問題

본교 학도호국단은 첫번째 교양학과목으로서 그 나름대로 상당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學術분야 확동부진 ②國際의 호응적인 지출문제 ③간부와 단원과의 유대관계 문제 ④간부의 指導能力 배양문제 등이 그것이다.

①학술활동이 부진했다는것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청정한것과 견주어일단은 같다고 가지 않는다. 개교 70주년을맞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교내의 각종간행물이 나오지 않거나 육성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물론 새로이 학국단나름의 많은 행사가 생겨지만 대학의 본질로부터 비판받는 학술분야가 지적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②國費의 효율적인 지출문제는 지난4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안전한 國費지출에 일관정이 없어져환경들이 많이 답답하다. 불간행물이 바로에 나오지 않고 답답하고 있다. 또한 학술분야가 지적되는 것은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③이번 소재로 결필중인 「極東의 파수병」(假題)의 자료수집을 위해 두번째 來韓한 제오르규씨는 루마니아 태생의 프랑스作家로 世界的으로 널리 알려진 反共作家이며, 대표작인 「25時」를 비롯하여 「神은 日曜日에만 말하는가」 「제2의 찬스」 등 많은 작품이 있다.

지난 8월22일 환국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記者會見을 가진 「게오르규」씨는 『佛敎學術會議는 그가갖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東大의위기가 바람하여 적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게오르규씨는 『한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 상당적인 힘이 될것』이라고 말하여 관심을 불기도 했다.

敎務處소관 브리핑에서金仁鴻敎務處長은 접견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梵蓮寺造成事業은 그 규모나 취지로봐서 꼭 의욕적인 面을 엿볼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욕과 노력이 전학생들에게 호감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계획의 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호감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계획의 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호감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는 볼 수 없다.

本校팀 準優勝 KBS杯 레슬링大會

지난 6일 장충체육관에서 開催된 제1회 KBS배 대학전국 레슬링대회에서 본교팀은 團體準優勝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팀이 참가하여 모두 5개팀이 풀리그로 진행된 이번 大會에서 本校팀은 3전全勝으로 準優勝을 차지했다.

한편 본교의 金鍾圭(倫加社·1)선수는 수수선수상을 受賞했다.

敎授會議 열려

各 處別 2學期계획 보고

76學年度 2학기 開講을 앞두고 全體敎授會議가 지난 3일 (金) 李瑄根總長을 비롯한 전체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李총장은 8萬大藏經影印本完刊, 世界佛敎學術會議, 崇敎殿移轉復元 大學·1般部에서 3승1패로 4전 전승을기록한 조폐공사팀에 이어 準優勝을 차지했다.

모두 5개팀이 참가하여 1일 간의 대회일정으로 3천全勝의 好記錄으로, 역시 全勝의 조폐공사와 달랐었다. 金和經, 張鎬成同門동의 노련한 게임 운영에 말려 5-2로 敗退,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한편 본교의 金鍾圭(倫加社·1)선수는 수수선수상을 受賞했다.

教授會議 열려

各 處別 2學期계획 보고

76學年度 2학기 開講을 앞두고 全體敎授會議가 지난 3일 (金) 李瑄根總長을 비롯한 전체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교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李총장은 8萬大藏經影印本完刊, 世界佛敎學術會議, 崇敎殿移轉復元 등 많은 학원가에 현안문제에 대한 처리보고 및 학원가를 생각해 볼때 불가피했다고 본다. 어떻든 학도호국단이 창설된후 戀國街는제모습을 찾았다. 勉學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학도호국단은 그간 구축, 76년도의 內實化, 조직화의 基本方向정립을 위해 本校 운영위원회 및 간부, 단원들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學徒護國團은 해체된 總學生會의기능을 대신한다. 즉 總學生會의기존업부에다 새로이 학도호국단으로서 재로운 업무량이 부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도호국단 護國에 다른 행사를 간추려 보면 호국행군, 격전지 탐방 순례, 국방학술 세미나 참석, 反共敎育강연회, 野營大會개최, 자체 교육걸렬, 국기게양·하강식 등이다.

즉, 이러 일련의 행사속에는 간부들의 지도능력 배양에 주력한 행사들이다.

開校 70주년을 맞이열린 東國 祝典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어 성황을 거뒀다고 본다. 특히 민속예술 대제전, 연무대회, 고전민속놀이동은 새로운 기획과 민족 고유의 맥락을 계승하자는의미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그리나 올연자들의 미숙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東國 축전은 主題意識이 드러나지 않았다. 行事하나 하나에 東國의 얼을 드러내 축전 전체가 調和된 70년의 東國이나 타났어야 했었다.

그 많은 행사 중에서 宗敎祭, 옥야제가 처음으로 선보여 많은 學生들이 호응을 얻었고 佛敎 합창단의 佛敎合唱發表會 또한 佛敎音樂의境地를 개척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世界佛敎學術會議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큰 수확을 거두었다. 主題發表에 나선 世界各國學者들의 열의나 討論 참가자들의 問題提起등이 모두 注目할만한 것.

이번 會議가 世界佛敎史上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韓國에서, 그것도 서울의 東國大學校에서 열렸음은 바로 韓國이 名門, 東國의 學的氣風이 그만큼 世界的인 레벨에 도달한 것이 아닐는지. 이러한 評價는 世界佛敎學界에서 先頭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반경은 초청한 일아 이래저래 國威을 선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5時」의 作家 게오르규 來校

"韓國은 平和思想의 堡壘"

소설 「25時」의 作家 「콘스탄틴·비르질·게오르규」씨가 8월31일 오후6시 來校, 李瑄根總長이 베푼 世界佛敎學術會議 리셉션에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많은 내외인사들과 환담을 나눈 게오르규씨는 李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佛敎學術會議는 그가갖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東大의위기가 바람하여 적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게오르규씨는 『한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 상당적인 힘이 될것』이라고 말하여 관심을 불기도 했다.

「25時」의 作家 게오르규 來校

"韓國은 平和思想의 堡壘"

소설 「25時」의 作家 「콘스탄틴·비르질·게오르규」씨가 8월31일 오후6시 來校, 李瑄根總長이 베푼 世界佛敎學術會議 리셉션에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많은 내외인사들과 환담을 나눈 게오르규씨는 李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佛敎學術會議는 그가갖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東大의위기가 바람하여 적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게오르규씨는 『한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있어 상당적인 힘이 될것』이라고 말하여 관심을 불기도 했다.

本校學徒護國團諸問題

본교 학도호국단은 첫번째 교양학과목으로서 그 나름대로 상당한 問題點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學術분야 확동부진 ②國際의 호응적인 지출문제 ③간부와 단원과의 유대관계 문제 ④간부의 指導能力 배양문제 등이 그것이다.

①학술활동이 부진했다는것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청정한것과 견주어일단은 같다고 가지 않는다. 개교 70주년을맞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교내의 각종간행물이 나오지 않거나 육성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물론 새로이 학국단나름의 많은 행사가 생겨지만 대학의 본질로부터 비판받는 학술분야가 지적된다는 것은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②國費의 효율적인 지출문제는 지난4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안전한 國費지출에 일관정이 없어져환경들이 많이 답답하다. 불간행물이 바로에 나오지 않고 답답하고 있다. 또한 학술분야가 지적되는 것은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本校 學事懲戒規程 (下)

2回警告者 應試不許 通算24學點未達, 留級

第1條 (目的) 이 규정은 本大學校 學則第44條 第52條2, 3項이 정하는 學生의 賞罰에 관한 事項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 學事懲戒는 學生處, 留級, 除籍은 敎務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3條 (學事懲戒) 學期마다 定期的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자에게 敎授會의 議決을 거쳐 學長이 (이하 敎養學部長을 포함한다) 學術警告를 하고 學生處長은 그 명단을 學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학기마다 수업일수의 3분의 1과 3분의 2線以上 결석한 자

②학기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선까지는 30%이상 缺席한 者

③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의 平均成績이 1·5 (65點)에 未達하는 者

④기타 留級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者

第4條 (學事警告의 효과) 學生處에서는 學術警告를 받은 學生에게는 學科主任敎授의 意見을 첨부하여 保護者通知書를 별표 2號書式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所定의 기한까지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再警告를 하게 되며 재경고는 學籍警告 回數에 通算된다.

第5條 (飛告) 前條 경고대상자는 ①학기마다 수업일수의 3분의 1과 3분의 2線以上 결석한 자는 ①학기마다 50%, 3분의 2선까지는 30%이상 缺席한 者

②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의 平均成績이 1·5 (65點)에 未達하는 者

③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이 12學點에 미달하는 者의 명단을 學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條 (學事警告處分의 通告) 學長은 학사경고의 처분으로부터 3일이내에 別表 1號書式에 따라 본인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고하고 總長에게 보고해야한다.

第7條 (祝書의 提出義務) 학사경고처분을 받은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10일이내에 學科主任敎授의 意見書를 첨부하여 保護者連署로써 별표 2號書式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所定의 기한까지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再警告를 하게 되며 재경고는 學籍警告 回數에 通算된다.

第8條 (留級) 학년마다 通算 取得學點이 다음에 未達하는 자에게는 그 미달하는 학년에 留級처분을 한다.

①留級처분을 받은 자의 유급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當該學年 전과목을 다시 履修해야 한다.

②본 규정은 學籍處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9條 (除籍) 除籍은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자에게 敎務處長이 (이하 敎養學部長을 포함한다) 學術警告를 하고 學生處長은 그 명단을 學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학기마다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는 50%, 3분의 2선까지는 30%이상 缺席한 者

②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의 平均成績이 1·5 (65點)에 未達하는 者

③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이 12學點에 미달하는 者

④기타 留級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者

第6條 (學事警告處分의通告) 學長은 학사경고의 처분으로부터 3일이내에 別表 1號書式에 따라 본인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고하고 總長에게 보고해야한다.

第7條 (祝書의 提出義務) 학사경고처분을 받은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10일이내에 學科主任敎授의 意見書를 첨부하여 保護者連署로써 별표 2號書式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所定의 기한까지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再警告를 하게 되며 재경고는 學籍警告 回數에 通算된다.

第8條 (留級) 학년마다 通算 取得學點이 다음에 未達하는 자에게는 그 미달하는 학년에 留級처분을 한다.

①留級처분을 받은 자의 유급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當該學年 전과목을 다시 履修해야 한다.

②본 규정은 學籍處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9條 (除籍) 除籍은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자에게 敎務處長이 (이하 敎養學部長을 포함한다) 學術警告를 하고 學生處長은 그 명단을 學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학기마다 수업일수 3분의 1선까지는 50%, 3분의 2선까지는 30%이상 缺席한 者

②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의 平均成績이 1·5 (65點)에 未達하는 者

③학기마다 취득한 學點이 12學點에 미달하는 者의 명단을 學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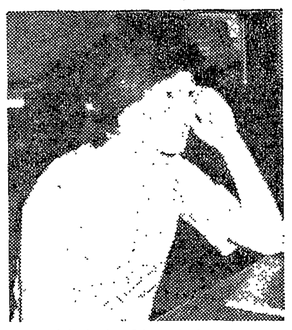
虛空에 입맞춤하는 돌탑같이

박진관

허공에 입맞춤하는
돌탑같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
합장을 위해 기도합적 엷는
나는 그렇게 죽어가리
이미 펴는 오고
이미 나의 운명은 정해졌나니
이 길이 나의 길이며
이것이 나의 마을 이라는 것도。
그리나 그것을 펴나와서
그것으로는 못가리니
허공에 입맞춤하는 돌탑같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

〈詩人·佛敎大 僧伽社〉

大學美展 文敎部長官賞受賞한 美術科 吉喜淑 양과 함께



▲敎職에 있으면서 作品活動을 계속하겠다고 말하는 吉양。

『제가 그림 大賞을 받다니 어리둥절해요。』제7회 大學美展에서 조소부문 文敎部長官賞을 受賞한 吉喜淑 23·美術社4) 양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美術社만 있는 學校로서는 보기드문 경사이다。본격적인 美術공부는 商業學校부터 시작했다는 吉양은 재작년 大學美展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작년 6회째는 銅賞을 수상하는 등 착실히 성장하는 유망주다。

吉양의 受賞作品 「新天地」는 어머니는 일하러 가고 아들은 책을 끼고 꿈꾸하러가는 모습을 담은 아동화와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受賞뒤엔 金昌熙 敎授님을 비롯한 여러 敎授님들의 지도와 동료들의 격려가 큰 힘。특히 형림 特講과 실기연습이 주효했단다。

수상후에는 敎職에 나가 作品活動을 계속하고 싶다고。

吉양은 휴배들을 위해 本校가 정서적인 面에 치중하여 東國人 모두가 깊은 예술적인 안목을 갖는 동보 조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강조한다。또 조소실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면서 학교당국의 배려가 아쉽다고。

吉양은 밤의 美術공부라면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보광동 집에서 작업실이 있는 명륜동까지 왕복 4시간의 통학길도 마다하지 않는 열성파。

◇新 天 地 〈文敎部長官賞 受賞作〉

공군불교禪書畵展
20人의 禪筆禪畵등

空軍 중앙佛敎會가 마련한 禪書畵展이 13일부터 19일까지 空軍회관 화랑(서울영등포구 대방동)에서 열리고 있다。

출품, 西洋, 鏡峯, 耘虛 普珠스님등 모두 20인의 禪畵, 禪畵를 한자리에 모았다。

청년강좌개최
YWCA주최

YWCA에서는 14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서울YWCA유게실에서 韓國의 예술, 문화, 사상, 정치, 사회등에 걸쳐 젊은이들을 위한 강좌를 실시한다。(☎65485)

文化短信

메아리

▲우리는 讀書에 있어 너무나 안이한 상황이 많은 것 같다。「讀」은 「책을 읽고 있다」라는 마음의 양식이 아니「책없는 세상」을 살고 밝아내는 책을 읽는 것이다。가을은 그 가을을 읽는 것이 간직해서 실천해야。활것이다。낮에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東洋的 지혜는참으로 놀랍다。정명지속과 自己修養의 수단이 겹무하다。명주기「森耕夜讀」이나 人間的이기때문이다。우리는 이時代에 그 날카로운 지혜를 배워야한다。그지혜를배우는것만이 아니라 森讀夜讀(?)하는 자세로 그 속기를가다듬어야 할것이다。따지고보면 독서하는데 필요한 장비만으로 볼 영일등불 탐험에 들어 갔다。74년에 初探된 이동굴은 절토가 잘 生成되어 있었는데 측량결과 257m로 밝혀졌다。

다음날은 랜프에서 별지않은곳에 위치한 東大洞窟을 탐험했다。73년에 초탈되어 본탐험부가 명명한 이 동굴을 입구가 비좁아 포복으로 약 20m 전진해야 入洞할 수 있는 곳이다。내부의 경관은 우아하고 깨끗할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이없었기 때문에 종유석이잘 발달되어 있었다。全長 166m로 측량된 이 동굴은 석순이 아직도 자라고 있는 살아있는 동굴의 하나다。그날 랜프이동중 13일에 먼저 출발한 정찰대를 만났다。그들은 일부러와 북동리(명주군소재) 입대의 정찰을 맡았는데 그곳에있는 7개의 동굴은 모두 50m이내의 것이고 별다른 이동굴은 없었다。

7월17일。이해룡 指導敎授님과 OB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22시40분청량리를 출발했다。다음날 여량에 도착하여 1일1회 운행하는 목호행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린10시간을 지루하기만 했였다。가까스로 일계를 거쳐 직원리에 도착하니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주민들말에 의하면 며칠전부터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이날은 생계형의 정찰을 마치고 직원리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주민들에 의해 미탐험동굴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재탐험을 실시했던 범 녹굴은 本 探險部에 의해 명주군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큰것으로 밝혀졌다。금번 하게 탐험에서 측량한 결과 全長 525m로 나타났다。범녹굴은 네부에 石花가 만발하여 있고특히 마장부근의 눈같이흰 림·스톤·플(Lim stone flo-wer)은 너무 아름다워 발자국을 내기가 아까웠다。

▲서늘한 洞窟속에서 측량및 生物群을 조사하는 隊員들。

洞窟探險部

<1>

20여개 洞窟測量完結 지어
서늘한 窟內서 여름을 잊고
범녹굴 완전탐험에 성공

韓國의 村落

<빈센트 S·R 브란트著·金瑄華譯·時事問題硏究所값1500원>

이책은 우리나라사람아닌 外國人에 의해서 씌여졌다는데우리의 관심을 모우게 한다。이 책을 읽는 사람은 外國人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韓國의 農村社會를 자세하고 깊게 分析하고 설명할수 있을까。우선 그금의 洞察力과 精力에 경탄을 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農村社會이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점을 한해서 外國人의 觀察과 分析에 의해서 비로소 생각해보게 되였다는 것은 한편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일이다。여하튼 남의 눈을 통해서 自己自身을 再發見할 수 있다는것도 意義있는 일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책은 韓國人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극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圖書館提供>

新着圖書

부정의래품 몰아내어 명랑사회 이룩하자。아빠는 안보역군 엄마는 방첩주부

「나」를 찾으세요。

풍요한 자연에 입맞춘 「나」를!
우아한 자연색, 자연향 — 신선한
자연미를 꽃샘으로 연출하세요。

가을 바람이 당신의 얼굴을 스칩니다.
한잎 단풍이 당신의 입술을 물들입니다.
맑은 하늘로 마냥 솟구치고 싶은
당신의 아름다움이 여기 피었읍니다.

신제품 「꽃샘」을 보여드립니다.
신제품 「꽃샘」이 지닌 자연색, 자연향은
망각속에 숨겨져 있던 참스런 당신의
「나」를 되찾아 드립니다.

메마르고 거칠어진 피부, 짙은 화장으로
변질된 피부— 그 속으로 스며드는
신제품 「꽃샘」의 감촉은 바로 당신을
위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신제품 「꽃샘」은 당신의 자연미입니다.

신제품 「꽃샘」은 새로운 쥬리아의 집념입니다.
신제품 「꽃샘」은 새로운 쥬리아의 확신입니다.
신제품 「꽃샘」은 새로운 쥬리아의 출발입니다.

화장품은 꽃샘 Julia FLORAL ENVY

신발매

〈꽃샘 제품안내〉
●기초제품 : 클드크림₩1,800 / 크린싱크림₩1,800 / 아스트린젠트₩1,500 / 마일더₩1,500 / 크린싱로숀₩1,400 / 뭘크로숀₩1,400 / 레몬로숀₩1,400 / 에모리엔트크림₩1,800 / 나이트크림₩1,800 / 모이스워크림₩1,800 / 아이크림 ₩1,200 / 마스크팩₩2,000
●부분제품 : 화운데이숀₩2,000 / 칼라로숀₩1,800 / 콤팩트₩1,500 / 콤팩트루즈₩1,500 / 아이샤도우₩1,800 / 립그로스₩1,500 / 아이브라우크림₩1,500 / 아이라이너₩600 / 립스틱₩1,200 / 에나멜₩700 / 에나멜리무버₩500 / 마스카라 1,000
●두발및보디제품 : 샴푸₩1,500 / 헤어린스₩1,200 / 보디로숀₩1,500
●방향제품 : 영원한사랑(향수) ₩2,000 / 영원한첨옴(오데코롱) ₩2,000

영원한 젊음·영원한 사랑
주식회사 쥬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34-1
〈쥬리아상담실안내〉 ●서울(63) 0511~5 ●부산(43) 3129 ●대구(5) 8275 ●대전(2) 4095 ●광주(3) 1254 ●전주(3) 0965 ●춘천 4398 ●강능 2518

* 신제품 「꽃샘」기념
100만원 고료 문예작품 모집
—응모자는 여자에 한함—
●주제는 반드시 「꽃샘」으로하고, 잡지 「쥬리아」 9월호를 참고하십시오.
●모집내용 : ① 詩(1인2편이내)
② 단편소설(200자 30장까지)
●모집기간 : 1976년 10월20일까지
●고 료 : ① 당선작 각1편 : 고료30만원
② 가 작 각2편 : 고료5만원
③ 입선작 각20편 : 5천원 상당의 선물
●발 표 : 1976년 11월10일자 일간신문지상 및 잡지 「쥬리아」 11월호
●응모작품은 반드시 겉봉에 붉은 글씨로 「꽃샘」이라고 명기하십시오.

讀書夜讀

초월한 진리인 聖賢과는 달리 진리의 일부분을 터득한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읽는 것이다。그렇게 보면 책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즉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책을 읽는 것만이 독서의 전부가 아니다。

▲책 선인들을 지식을 조개라 치면 지혜는 진주라 했다。

밤낮이 있으면 안되고 계절이 있어야 한다。

▲책은 진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그러므로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책을 읽을때마다 그 가운데 숨어있는 진주를 캐내야 한다。우리는 그조개속에 있는 진주를 캐도록해야 한다。많은 책을 읽으면서 실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진주다운 것을 찾아내야 한다。그러자면 많이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책은 진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그러므로 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내부의 경관은 우아하고 깨끗할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이없었기 때문에 종유석이잘 발달되어 있었다。全長 166m로 측량된 이 동굴은 석순이 아직도 자라고 있는 살아있는 동굴의 하나다。그날 랜프이동중 13일에 먼저 출발한 정찰대를 만났다。그들은 일부러와 북동리(명주군소재) 입대의 정찰을 맡았는데 그곳에있는 7개의 동굴은 모두 50m이내의 것이고 별다른 이동굴은 없었다。

7월17일。이해룡 指導敎授님과 OB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22시40분청량리를 출발했다。다음날 여량에 도착하여 1일1회 운행하는 목호행 버스를 타기위해 기다린10시간을 지루하기만 했였다。가까스로 일계를 거쳐 직원리에 도착하니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주민들말에 의하면 며칠전부터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이날은 생계형의 정찰을 마치고 직원리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주민들에 의해 미탐험동굴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재탐험을 실시했던 범 녹굴은 本 探險部에 의해 명주군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큰것으로 밝혀졌다。금번 하게 탐험에서 측량한 결과 全長 525m로 나타났다。범녹굴은 네부에 石花가 만발하여 있고특히 마장부근의 눈같이흰 림·스톤·플(Lim stone flo-wer)은 너무 아름다워 발자국을 내기가 아까웠다。

▲서늘한 洞窟속에서 측량및 生物群을 조사하는 隊員들。

洞窟探險部

<1>

20여개 洞窟測量完結 지어
서늘한 窟內서 여름을 잊고
범녹굴 완전탐험에 성공

韓國의 村落

<빈센트 S·R 브란트著·金瑄華譯·時事問題硏究所값1500원>

이책은 우리나라사람아닌 外國人에 의해서 씌여졌다는데우리의 관심을 모우게 한다。이 책을 읽는 사람은 外國人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韓國의 農村社會를 자세하고 깊게 分析하고 설명할수 있을까。우선 그금의 洞察力과 精力에 경탄을 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農村社會이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점을 한해서 外國人의 觀察과 分析에 의해서 비로소 생각해보게 되였다는 것은 한편 흥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일이다。여하튼 남의 눈을 통해서 自己自身을 再發見할 수 있다는것도 意義있는 일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책은 韓國人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극제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圖書館提供>

新着圖書